



# 기독일보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음력 8월 9일)

[www.christiandaily.co.kr](http://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1884호

##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별세

14일 오전 7시 30분 서울대병원서… 향년 86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사진)가 14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교회 측에 따르면 조 목사는 이날 오전

말는다고

빈소는 서울대병원이 아닌 빈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홀에 마련될 예정이다. 조문은 15일 아침 7시부터 가능하다.

장자는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죽자실

국제금식기도원 묘원

1936년 2월 14일, 현재의 울산광역시인 경남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서 태어난

조 목사는 1958년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설립했다. 이후 이 교회는 교인 수 70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종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8년 5월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지난해 7월 경마한 놀출할로 수술을 받았었다.

▶관련기사 3, 10면 김진영 기자

## “EBS, ‘퀴어 이론’ 주창한 주디스 버틀러 강연 취소하라”

한교연 동대위·한반교연,  
14일 EBS서 규탄집회 개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박만수 목사, 동대위)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 한의상 목사, 한반교연)이 지난 14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EBS 방송사 사옥 앞에서 ‘반윤리적인 사람 강연 용납 못한다’는 제목으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EBS는 오는 21일 ‘위대한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예고한 주디스 버틀러 강연의 방송 계획을 철회하라. 국민의 혐세로 운영되는 방송사가 소아성애와 극진 상간을 지지하는 주디스 버틀러 강연을 방송하다니 경악을 금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의 사상에 최대 피해자는 바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이다. 이미 주디스 버틀러 강연에 반대하는 수 많은 시청자의 항의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올 추석에 버틀러의 왜곡된 삶을 방송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폭격”라고 밝히고, “레즈비언인 버틀러는 1999년 자신의 저서인 ‘젠더 트러블’의 서문에서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며 그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퀴어 이론을 주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디스 버틀러는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Gender)와 생물학적 성별인 세스(Sex)의 구분을 해체하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녀는 남녀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철저히 비판하면서, 이는 강압적이며 이성적인 질서로 이루어진 사회가 부모가족 중심의 질서를 구축했다고 주



“반윤리적인 사람 강연 용납 못한다” 한국교회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 14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EBS 방송사 사옥 앞에서 “EBS 방송사의 주디스버틀러 강연 방송을 취소하라”는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CHTV 김상고 기자

장한다. 이를 위해 남녀의 결합을 넘어선 자유로운 성관계 곧 동성애·소아성애·근친상간 등까지 정당화하고 있다”며 “반윤리적인 사람을 공영방송에서 위대한 강연자로 선정, 전 국민을 상대로 강연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주디스 버틀러가 2017년 브라질에 강연차 방문했을 당시 국민의 강력한 반대 시위에 이어, 36만여 명이 반대 서명을 제출했다. 지난 2018년 헝가리 정부는 젠더는 아님이고, 과학이 아니라며 대학

다”며 “68혁명을 통해 소아 성혁명을 주장했던 독일 녹색당도 최근 과거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런 젠더의 물결은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과 더불어 칠레 등 남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EBS가 동성애 용호 방송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한 이들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산업화·민주화를 이룬 건 어떤 민족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 윤리와 교육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이 약소국가의 설움을 딛고 동성애 합법화로 양심이 마비

된 사구를 대신해 윤리 교육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면서 “대한민국의 꿈인 미래세대를 성적으로 타락시키려는 EBS 방송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EBS는 탈 가족·성별 해체를 주장하는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 계획을 취소하라. 그것만이 공영 방송사로서 EBS가 존경받을 것이다. 동성애를 합법화한 사구에서 발생한 젠더 이론에 대한 사실도 정확히 보도하라. 또한 EBS는 비윤리적 방송에 대해 사과를 맡은 김황래 목사는 “우린 변변치 않지만 보리떡과 같다면 승산이 있다. 보리떡과 같이 자야가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

노형구 기자

## 예장 호헌, 제106회 성총회 열려

제106회 신임 총회장에

조명숙 목사 선출



예장 호헌 제106회 성총회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호헌 제106회 성총회가 14일 서울목동인자교회(담임 조명숙 목사)에서 ‘지경을 넓혀가는 종회 대상410’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는 1부 개회예배, 2부 성찬예식, 3부 회무처리, 4부 폐회예배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1부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전찬주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김옥자 목사의 기도, 부서기 조양순 목사의 성경봉독, 서부노회 김동철 목사의 특별찬양, 경기노회 이인순 목사의 특별위원찬양, 제105회 총회장 현ベ드로 목사의 설교, 대전노회 장 최한석 목사와 한남노회장 정탁기 목사의 특별기도, 현금, 종회부회계 이인순 목사의 봉헌기도, 증경총회장 이강의 목사의 격려사, 증경총회장 김황래 목사의 축사, 현베드로 목사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를 맡은 현 베드로 목사는 ‘의인을 견지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벧후2:4~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현 목사는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자신의 지혜를 좇아 살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악한 세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며 “노아와 룻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는 다른 두드러진 삶을 살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아닌 하나님을 벗 삼고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 향유, 편지 된 자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신임총회장을 맡게 된 조명숙 목사는 “임원 총회가 지경이 넓혀지고,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현 베드로 목사는 “쌓아온 경륜과 경험으로 106회 총회장님이 총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잘 협력하여 총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4부 폐회예배에 설교를 맡은 조명숙 목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순종으로 자신을 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신다”며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창대하게 될 것을 소망한다. 영원 구원과 이웃 사랑에 앞장서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돋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총회 일정은 신임총회장의 축도와 파회 기도, 파회 선언문 낭독, 파회 선언으로 마무리 됐다. 장지동 기자

한국은행 본관 바로 옆  
신세계백화점 본점 바로 건너편

THE STAY CLASSIC  
더스테이클래식 명동



## 명동의 핵심! 레지던스 분양 수익형 투자

01 명동 최초 레지던스 공급

02 풍부한 독점 배후수요

수많은 국내외 대기업체 및 해외 관광객

03 평생 연금 부럽지 않은 고수익

04 풀 퍼니시드 하이엔드급 옵션

신청금 200만원 (※신청금은 미 계약 시 반환됩니다.)

개화번호 : 우리은행 1005-604-180966 코리아신탁(주)

02) 6006-4777

• 사업/신탁 : KOREA LIFE INSURANCE  
• 위탁 : (주) 에스비플랜  
• 시공 : CJ CGV  
• 신종전설(주)

